

가전제품 생산자 책임 재활용효과 “높다”

2001년 1월1일부터 「가전제품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실시된 이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1년 2/4분기까지 판매대리점을 통해 회수한 폐 가전제품은 31만1000대로 2001년 재활용 목표량의 48%에 달했다.

폐 가전제품 회수·처리 실행계획이 2001년 2월20일 수립돼 연차별 재활용 목표량, 회수·처리체계, 권역별 처리공장 설치계획, 적정 처리방법 및 이행실태 판단기준, 행정절차 등을 가전 3사와 협의해 확정했다.

가전 3사는 판매대리점을 통해 폐 가전제품을 무상회수·재활용하고 있는데, 회수된 폐 가전제품은 중부권 재활용센터 및 5개 전문 가전 처리업소에서 재활용 처리 하고 있다. 중부권 재활용센터는 충남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처리능력은 연간 28만대이다.

폐 가전제품 재활용에 따른 가전 3사의 편익은 연간 7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치금 면제 76억원, 재활용품 판매수익 16억원, 처리비용 증가금액 22억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권역별 재활용센터 설치를 추진할 방침으로 있는데 폐 전자제품 처리능력 확대를 위해 영남권, 수도권, 호남권 가전 처리공장 설치를 추진중이다.

삼성전자와는 폐 가전제품 처리능력을 28만대에서 2003년 91만대로 확충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LG전자는 2001년 8월29일 준공 목표로 영남권 재활용센터 설치를 추진해 계획대로 준공한 바 있다. 수도권, 호남권은 2003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폐 가전제품 재활용센터 설치계획

(단위: 억원, 만대/년)

권역	설치회사	투자계획	처리능력	위 치	완공예정일
전 체	-	665	91	-	-
중부권	삼성전자	218	28	충남 아산시	1998.5
영남권	LG전자	250	24	경남 함안군(칠서공단)	2001.8
수도권	가전3사	74	24	경기 고양시(난지하수처리장)	2002.12
호남권	대우전자	123	15	전북 정읍시(정읍공단)	2003.12

2000년 기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폐기물은 125만7000대가 발생해 가전 3사가 50%인 62만5000대를 회수하고, 재활용센터 등을 통한 중고품 재활용이 21만9000대(17%)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41만3000대는 소비자가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배출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의 유상 회수물량 대부분이 판매점을 통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전제품 배출을 위한 스티커 구입액을 평균 1만원으로 볼 때 소비자는 연간 41억3000만원 정도의 배출수수료 절감이 가능하게 됐다.

< Chemical Daily News 2001/ 12/ 11 >